

공무원연금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문제점

- 2013년 시행령 개정으로 **재평가를 변경에 따른 연금 손실액**이 발생
 - 담당자의 생각없는 행동으로 인한 시행령 개정
 - ※ 연금복지과장: 하태욱, 담당사무관: 이경, 주무관: 양승주
 - 2013년 일방적 시행령 개정으로 **재평가율 국민연금 대비 1.5배 ~ 4.5 낮음**
- 공무원연금법의 독소조항으로 **연금역전** 발생
 - **1995년 임용 : 280만원 : 374만원 손실액 : 94만원**
 - 공무원연금: 280만원 : 국민연금 255만원+퇴직연금 119만원
 - **1996년 임용 : 290만원 : 443만원 손실액 : 153만원**
 - 공무원연금: 290만원 : 국민연금 304만원+퇴직연금 139만원
 - **2006년 임용 : 370만원 : 483만원 손실액 : 113만원**
 - 공무원연금: 370만원 : 국민연금 357만원+퇴직연금 126만원
 - ※ **당초 소득대체율은 60%로 설계되었으나 독소조항으로 40%초반으로 하락**
- 국민연금에는 없는 이행률로 현재 퇴직자 20%~30% 연금 삭감
 - 너무 낮은 소득재분배 기준액으로 인해 6급 공무원들 마저 삭감 구간에 포함되어 현재 퇴직자들 대부분이 소득재분배로 연금이 삭감됨
 - 소득재분배 구간 중 122% 이상 가산 구간에 대한 미적용 폐지 필요
- 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5년간의 소득 공백** 발생
 - 계속 고용 방식과 재고용 방식의 협의 도출 시급
- **공무원연금 납부는 많이 수령은 조금**(6급 예시 → 5급 이상 더 큰 손실)
 - 1996년 임용(71년생) 공무원 연금 예상액: 290만원
 - ※ **동일 소득으로 국민연금 계산 시 4,437,770원(약 150만원 손해)**

□ 정책적 해결책

- 보수의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 **정년연장**으로 소득공백에 대한 문제 해결
-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연금삭감 무효 선언
- **국민연금 수준의 재평가율 적용** 요구 및 이행률 폐지 요구
- 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생존권 연대 투쟁
 - 재평가율과 이행률 폐지 불가시 보수 현실화 추진
 - 보수 현실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통합 방안 검토 필요

운영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 개별적 해결책

- 보수의 근본적인 인상 요구에 대한 한 목소리 필요
 - 본봉의 상승은 연금의 상승이라는 근본적인 해결 반응을 정부에 요구
 - 임금 교섭권과 생존권 투쟁에 대한 유리한 고지 선점 가능

※ 보수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정당한 보수 인상 요구(국회 입법, 대선정책 등)

- 정년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없이 즉시 연금 수령 요구 동참
 - 계속고용, 재고용 등에 대한 고용방식을 정부 측과 속히 합의

※ 우리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노사간 자율적 결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요구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기제 공무원(노동시간 단축형) 제도 적극 요구
- 소득대체율 인상분을 국민연금의 기준을 공무원연금에 적용 요구 동참
 - 소득대체율 인상은 공무원연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40%→43%)

- 공무원연금 재평가율 국민연금 수준으로 형평성 요구
 - 재평가율 1% 인상 시 연금액 약10만원 정도 인상됨

※ 소득대체율과 재평가율이 같이 연동되어 인상될 경우 연금 수령액 상승

○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 반납: 공무원 임용전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 받았던 금액을 공단에 반납
- 추납: 1999년 4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임용전 공백기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는 방식
- 선납: 최대 5년까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
- 가입방법(1355 또는 국민연금 지사 방문)
 - 명예퇴직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 후 본인에게 맞는 타입으로 가입
 - 정년퇴직자: 만 60세 1일 이전 의원면직 요구하여 가입
 - 가입보험료: 9만원으로 산정 요구(최대 수익비 4배까지 가능)

국민연금 임의가입 예정 사례 #1

1964년 11월 출생 퇴직자: 63세 국민연금 수령
공무원 임용전 국민연금 가입기간: 91개월
반납일시금: 1300만원(기존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함)
91개월 1039만원 반납 + 267만원(9만원 연금 * 29개월 선납)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 358천원(20년 간 106백만원 예상, 물가상승률2%)

국민연금 임의가입 예정 사례 #2

1979년 10월 출생 퇴직예정자: 65세 국민연금 수령
공무원 임용전 국민연금 가입기간: 117개월
반납일시금: 27만원(기존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함)
117개월 30,113,880원 공단 예치금 + 27만원(9만원 연금 * 3개월 선납)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 430천원(20년 간 150백만원 예상, 물가상승률3%)

#참고자료

1. 2024년 공적연금 신규수급자 연금액 비교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2. 연도별 일반직 공무원의 60세 퇴직자 연금액 비교(2012~2022년)
3. 연금법 독소조항(이행률,재평가율)으로 인한 퇴직예정자 연금손실액
4. 공무원연금법 독소 조항 현황

1. 2024년 공적연금 신규수급자 연금액 비교

신규수급자 가입기간별 평균 연금액(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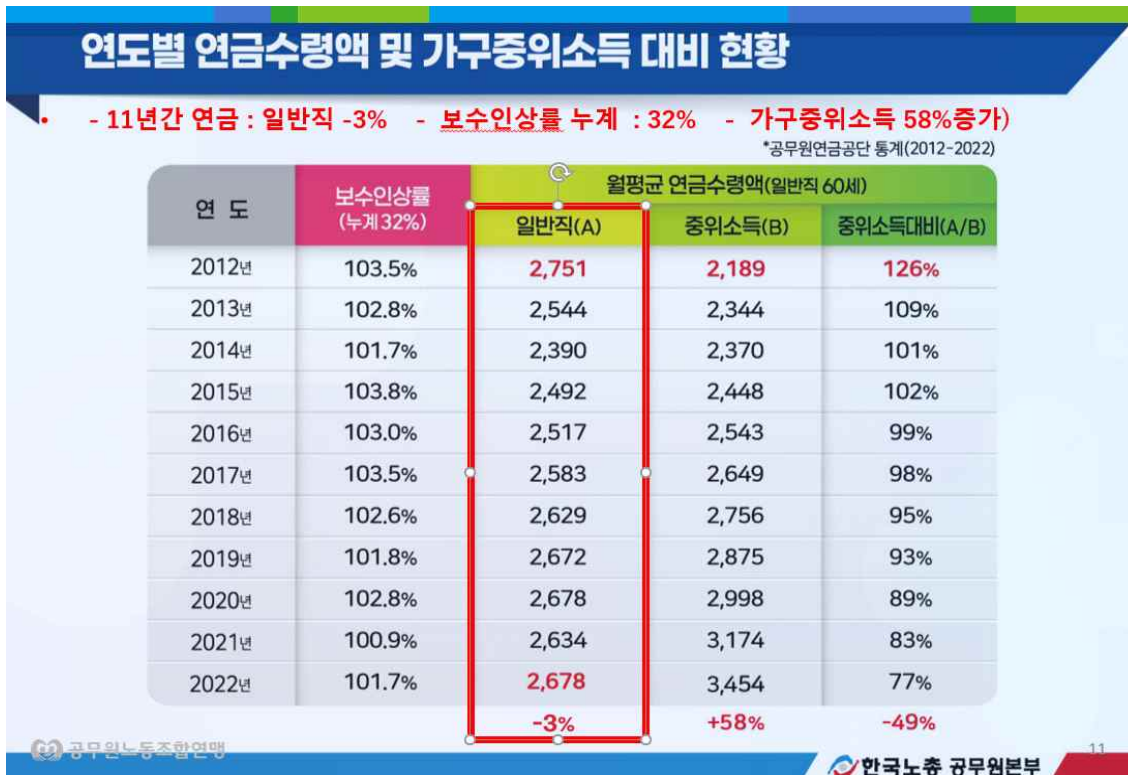
국민연금

B급	600원 초과 650만원 이하	
가입기간	평균액	인원
평균	2,010	501
10년	796	1
11년	720	3
12년	922	4
13년	959	1
14년	1,036	1
15년	938	2
16년	1,014	4
17년	1,104	5
18년	1,191	4
19년	1,280	5
20년	1,467	7
21년	1,367	8
22년	1,380	39
23년	1,541	12
24년	1,712	12
25년	1,770	17
26년	1,999	8
27년	1,937	16
28년	2,072	12
29년	2,310	23
30년	2,070	15
31년	2,318	42
32년	2,209	39
33년	2,217	189
34년	2,316	20
35년	2,283	4

공무원연금 (교원,경찰 포함)

가입기간	평균액	인원
평균	2,925	32,062
10년	752	41
11년	872	30
12년	786	43
13년	1,184	39
14년	1,265	41
15년	1,444	82
16년	1,361	45
17년	1,224	40
18년	1,498	56
19년	1,656	58
20년	1,506	712
21년	1,829	141
22년	1,885	141
23년	2,068	171
24년	2,129	164
25년	2,354	194
26년	2,331	258
27년	2,400	286
28년	2,546	331
29년	2,641	406
30년	2,741	480
31년	2,718	1,452
32년	2,828	2,692
33년	3,078	24,159

2. 연도별 일반직 공무원의 60세 퇴직자 연금액 비교(2012~2022년)



3. 연금법 독소조항(이행률,재평가율)으로 인한 퇴직예정자 연금손실액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 손해율 현황

연번	임용연도	직급	현 재 연금액	제도 변경전 연 금 액	재평가율 손 해 액	이 행 률 손 해 액	손해율	비고
1	1988	4급	2,993,164	4,495,466	1,131,769	370,534	50%	
2	1990	5급	2,903,570	4,092,243	779,914	408,752	41%	
3	1990	5급	2,873,185	4,118,814	833,981	411,649	43%	
4	1990	6급	2,818,517	3,622,517	417,082	386,918	29%	
5	1992	6급	2,415,386	3,306,052	548,795	341,870	37%	
6	1993	6급	2,362,658	3,114,674	458,830	293,186	32%	

공무원 퇴직 예정자의 연금법 시행령(재평가율 변경,이행률)에 따른 월별 연금손실액 현황

4. 공무원연금법 독소 조항 현황

공무원연금 독소조항 현황

- 현황 :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 초반으로 하락함
 - 당초 소득대체율은 60%로 설계되었으나 독소조항으로 대폭 하락함
- 재평가율 : 국민연금 대비 **1.5배 ~ 4.5배** 낮음
 - 2013년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대폭 하락
- 이행률 : 국민연금에는 없는 **연금삭감제도** 현재 퇴직자 20~30% ↓
 - 현재 퇴직자 기준 임용연도에 따라 20~30% 연금을 삭감함
- 소득재분배 제도 정상화
 - 소득재분배 구간 중 122% 이상 **가산구간**에 대한 미적용 폐지
- 퇴직수당 산정기간 연장
 - 현재 최대 33년 지급 ⇒ 전체 재직기간의 확대
- 합산반납금 이자율 국민연금 대비 30% 높음
 - 국민연금은 정기예금 **평균금리**, 공무원연금은 정기예금 **최고금리**
- 퇴직수당 미지급 : 직계존속 없는 **독신공무원 사망시**
 - 국민연금가입자는 민법상 상속인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
- 업무외 범죄에도 연금 반액 감액 : 교통사고 이외는 **금고 이상시**
 - 국민연금은 범죄에 대한 감액 규정 자체가 없음
- 퇴직 후 소득에 대한 연금 감액 규정
 - 국민연금은 5년간 **연기연금 선택시 미적용**, 5년후 부터는 감액 없음